

「부·울·경 살리는 가덕신공항 조속 건설」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경제계 공동성명

지난 20여 년간 부·울·경 경제계는 신공항 문제의 정치쟁점화로 인해 피로도가 최고조에 이르렀다. 다행히 지난해 김해신공항 문제가 국무총리실로 이관되어 이제는 검증결과 발표가 임박하였다. 부·울·경 경제계는 동남권의 명운이 걸린 신공항 건설 문제가 이번에는 반드시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총리실의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한 검증결과가 아무런 대안 없이 발표되고, 또다시 후속절차로 신공항 입지선정이 기약 없이 지체된다면 제대로 된 신공항을 염원해온 부·울·경 800만 시민이 받을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동안 부·울·경 경제계는 김해신공항 불가를 대비해 전문가들의 자문과 철저한 검토를 통해 ‘가덕신공항’ 개선안을 대안으로 마련하였다. 부·울·경 경제계는 가덕신공항이 안전, 소음, 확장성, 경제성 등에서 김해신공항의 유일한 대체지일뿐 아니라 최선의 선택임을 확신한다.

도심공항인 김해공항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태생적 한계를 극복한 가덕신공항은 해상공항으로 24시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어, 기존 산업의 첨단화와 IT,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의 유치가 가능하며, 환적화물 창출공간 및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항공화물 특화단지 조성이 가능하다.

나아가 가덕신공항은 세계적 환적항인 부산신항과 유라시아 철도와의 연계를 통해 부·울·경이 동북아의 새로운 복합물류거점으로 도약하고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대동맥이 될 트라이포트를 완성시킬 것이다.

이처럼 부울경 경제체가 제시하는 가덕신공항은 김해신공항의 문제점을 일거에 해결하고, 침체된 부울경 경제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부산·울산상공회의소와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는 지난 7월 22일 동남권 경제체를 대표하여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부울경 신공항의 조속 건설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한 달여가 지난 지금 당초 예상과는 달리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한 검증이 국토부의 무리한 수정안 제출 등으로 지체되고 있는 만큼 관문공항 건설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최종 검증결과 발표 시 부울경 경제체가 공동으로 마련한 가덕신공항 개선안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결과도 함께 발표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부울경 신공항의 조속한 입지 결정과 건설을 통해 동남광역 경제권의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부울경 경제체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정부에 촉구한다.

하나, 부울경 800만 시도민의 오랜 염원인 제대로 된 신공항 건설을 위해 정부는 국토부의 김해공항 확장안을 조속히 취소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급증하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과 항공물류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 가능하며,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대동맥으로 육해·공·물류 트라이포트 구축이 가능한 가덕 신공항 건설을 공식화해 줄 것을 800만 부울경 주민의 뜻을 모아 간절히 요청한다!

2020년 8월 26일

부 산 상 공 회 의 소 회 장 허 용 도
울 산 상 공 회 의 소 회 장 전 영 도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 한 철 수